# 남원예촌 꽃담장 '대성황'

## 관광형 장터 자리매김

남원예촌 생태문화장터 꽃담장이 관광형 장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광한루원 돌담아래 펼친 남원예촌 생태문화장터 '꽃담장'이 성황을 이루면서 관광형 장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꽃담장은 남원시가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남원예촌과 시내권으로 유인하는 동선을 확장하기 위해 징검다리 장터로 추진되었다.

지난 13일 첫 번째 장을 연 꽃담장은 이어 27일 장에도 많은 여행객과 시민이 방문해 남원관광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부각되고 있으며, 27일 장에는 가을비로 방문객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고 입소문을 들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져 성황을 이루었다.

더구나 여행주간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의 남원여행 문화버스 단체관광들이 찾으면서 새로운 관광형 장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또한 꽃담장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참여 출점자가 35팀에서 55팀으로 대폭 늘어가고 있다.

특히, 3일 장에는 쑥쑥농부 등 지역 내외의 참여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 장터 매력과 함께 규모화가 지속 향상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성과에 힘입어 출점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3일부터는 종가집 방향 등 주변상가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기간 중에 광한루원 체류화 및 관광객 동선 확장 전략을 보다 과감하게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전북도 14개 시군을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전북투어패스를 함께 동원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원관광의 연계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복지사각지대 예방·사회 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임실군이 12월말까지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거주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는 만 65세 이상 신규 도래 및 전입 독거노인, 2018년 상반기 독거노인 현황조사 미완료자(부재·확인불가 등)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임실군노인복지관에서 조사인력을 채용해 실시하게 된다.

군은 상반기에 실시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2,962명을 조사완료했으며 만 65세 이상 신규 도래 독거노인 및 전입 독거노인 등 300여명은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요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독거노인 보호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상태, 사회관계정도, 생활여건, 건강상태, 서비스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후에 서비스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며 요보호대상 독거노인에게는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를 제한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 구축은 물론 치매, 자살 고위험, 학대 피해 독거노인 등 요보호대상자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장기적인 독거노인 보호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오늘부터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전

##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 설정 · 산불감시원 ·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임실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군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대비해 전 지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다.

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에 걸쳐 2018년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대책본부를 마련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9명과 산상감시원 25명, 읍면기동대 40명을 포함한 산불감시원 84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했다.

산불감시원들은 입산통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방지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백련산 등 관내 주요지점 4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읍·면 산불감시원에게 배부된 산불신고 단말기를 통하여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에 전북도 임차헬기 지원체제까지 구축하는 한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감식반을 동원해 산불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세민 산림공원과장은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등 사소한 이유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한건의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강천산 군립공원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강천산군립공원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

## 순창군-순창사진동우회, 전국사진 공모전… 11월 16일까지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의 경관을 한 장의 사진으로 전국에 알리는 사진공모전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사진동우회가 주관하는 '2018 강천산군립공원 전국사진 공모전'은 강천산의 사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토리사진 및 순창의 특색 있는 풍경사진을 주제로 지역, 연령, 자격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작품 출품료 없이 개인 1인당 5점 이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상규모는 대상 1점에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점에 각 200만원, 우수상 3점에 각 상금 100만원과 특선 10점에 각 20만원, 입선 80점에 각 10만원 등 총 96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다음달 말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별통지 한다. 사진 공모전 사진작품 접수는 오는 16일까지며, 12월 중 시상 및 전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진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많은 참여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순창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관광홍보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천산 군립공원 전국 사진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사진동우회( 063-653-250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의 일환으로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순창군, 걷기운동 프로그램으로 군민건강 앞장

순창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의 일환으로 '다 같이 걷자 동네한바퀴'라는 군민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 같이 걷자 동네한바퀴 군민건강걷기 프로그램은 지난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2회,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바른 걷기운동 보급과 걷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로 바른자세 걷기 및 올바른 식습관 영양교육 등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웃간 유대감 강화를 높이기 위한 노래교실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였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군민의 걷기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건강생활실천 방법을 숙지하고 건강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 남원시, 총무국 소관 주요 사업장 13곳 점검

남원시는 지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무국 소관 주요 사업장 13곳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남원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의훈 총무국장과 해당 부서장이 현장을 찾아 면밀하게 점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29일에는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등 4개소 현장을 점검하고, 30일에는 남원아트센터 조성사업,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 남원고전소설문화관 건립사업, 명창의 여정 건립사업 등 현장 4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11월 1일에는 여성문화센터, 매립장 증설사업, 광역 재활용품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등 현장 5개소를 찾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의훈 총무국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더욱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시청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실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남원시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과 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31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해 하GO! 관심 갖GO! 실천 하GO!' 주제로 나인형 강사가 특강에 나섰으며, 나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이자 광주여성민우회 대표를 맡고 있다. 남원시는 상반기(4월)에도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4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와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및 예방을 위한 실천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원만한 직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